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과제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e Pacific and Beyond

Donald Rumsfeld

Asan Memorial Lecture

06

**Donald
Rumsfeld**

Contents

도널드 럼스펠드 약력 • 6

강연 • 9

질의 응답 • 29

Donald Rumsfeld Profile • 44

Lecture • 47

Q & A • 69

제 6 회 아산기념강좌

“21세기 동북아안보의 과제”

도널드 럼스펠드

2011년 10월 13일

도널드 럼스펠드

도널드 럼스펠드는 제 13대와 21대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50여 년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일했다. 현재 비영리 자선단체인 럼스펠드재단의 이사장이다.

럼스펠드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9·11 직후 대 테러 군사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했고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다. 또 미군이 21세기에 적합한 첨단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군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럼스펠드는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해군에서 3년간 복무했다. 일리노이주의 하원의원을 지냈고 대통령 경제자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6년 국방부 장관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포춘》지가 500대 기업으로 선정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 2월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Known and Unknown*)》을 출간했다.



Chapter 1 강 연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과제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거의 반세기 전 미 하원의원의 자격으로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이 지역의 기회와 잠재력을 새삼 깨닫습니다. 세계 경제는 하락세에 있지만, 아시아의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 동남아와 대만을 거쳐 일본을 지나 중국의 초원지대와 해안도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인 특유의 근면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인의 특성은 한국에서도 완전히 느껴집니다. 서울의 야경을 수놓은 수많은 불빛과 울산 조선소의 타워크레인, 한국인의 역동성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근면과 헌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역동적인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보여준 우정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영문판으로 출간되어있고, 내년 초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도 번역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4년에 걸친 집필을 끝내고, 다시 국제 현안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정부 관료와 리더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한 경험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부상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학자가 아닌 미국에서 80여년을 살아온 시민으로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아시아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우선 21세기의 운명을 결정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은 유럽 이민자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유럽에 편향되어 왔습니다. 건국 이후 200년 동안 미국은 유럽에 맞서 싸우다가, 양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종전 후에는 소련과 공산주의에 맞서 수십 년에 걸친 이데올로기 전쟁을 해왔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의 정책과 관심은 중동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중동은 석유 자원에 기댄 독재체제, 편협한 종교적 극단주의, 지역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고, 이에서 비롯된 테러리즘의 불씨는 2001년 9·11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맞설 미국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과 군사작전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지원국들을 제압해 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중동에 대한 현재 규모의 대대적인 군사개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계의 인구와 경제적 힘은 점차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아태지역을 향후 외교정책의 요충지로 삼을 가능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차 위협적인 열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고,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내에 범접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단순한 전망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단순한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란의 위협이나 유럽의 경제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아시아의 안정 확보를 대외전략의 주요 관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두 나라가 이 지역에 있고, 그 중 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계 2, 3위권의 경제대국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는 재화와 서비스를 합해 약 2조 달러에 이르고, 아시아와의 교역으로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만도 약 1,100만 개나 됩니다.

또 아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방위예산 규모의 약 3분의 1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방위비를 늘린 이유는 아시아인이야말로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춰야 하고, 어떠한 침략 행위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메리카(Post-America) 시대의 도래?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주장이 요즘 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역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책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책 역시 현재의 미국은 과거 미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은 하락세에 있으며, 곧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위 '미국 쇠퇴론'은 미국 안팎의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뿌리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도의 산업화와 중앙집권화를 이룬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부상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미국의 번영은 이후 반세기동안 이어졌습니다. '쇠퇴론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부상과 서구의 몰락이라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논리였으나, 그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부채를 탕감하지 못하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지 못한다면, 앞서 제시된 비관적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이 겹겹의 규제를 양산하는 1만 1,000페이지의 복잡한 세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성장과 번영의 핵심인 민간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미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은 과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명망 높은 대학과 세계 특허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 미국 경제는 그 동안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 미국 사회는 새로운 생각, 다양한 문화, 그리고 부지런한 민족에게 개방된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 간의 논쟁이 때때로 격해질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논쟁에서 혁신이 탄생합니다.

다. 이민자의 나라로 시작한 미국은 미래에 기여할 열의가 있는 이민자에게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미국이야말로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21세기의 변화에 직면해 번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민이 타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은 태생적으로 변화에 익숙합니다. 어느 나라든 미국을 등한시한다면 역사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에게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국가재정을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을 지속할 것이며, 고립주의의 유혹을 뿌리칠 것입니다.

미국은 해상안보 유지, 국제교역 장려, 국제체제 감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바로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지원은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역동적인 나라들이 급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중국 역시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국민방문 이후에 국익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남한을 스탈린식 공산 독재와 궁핍한 경제체제로부터 방어했고, 일본에 주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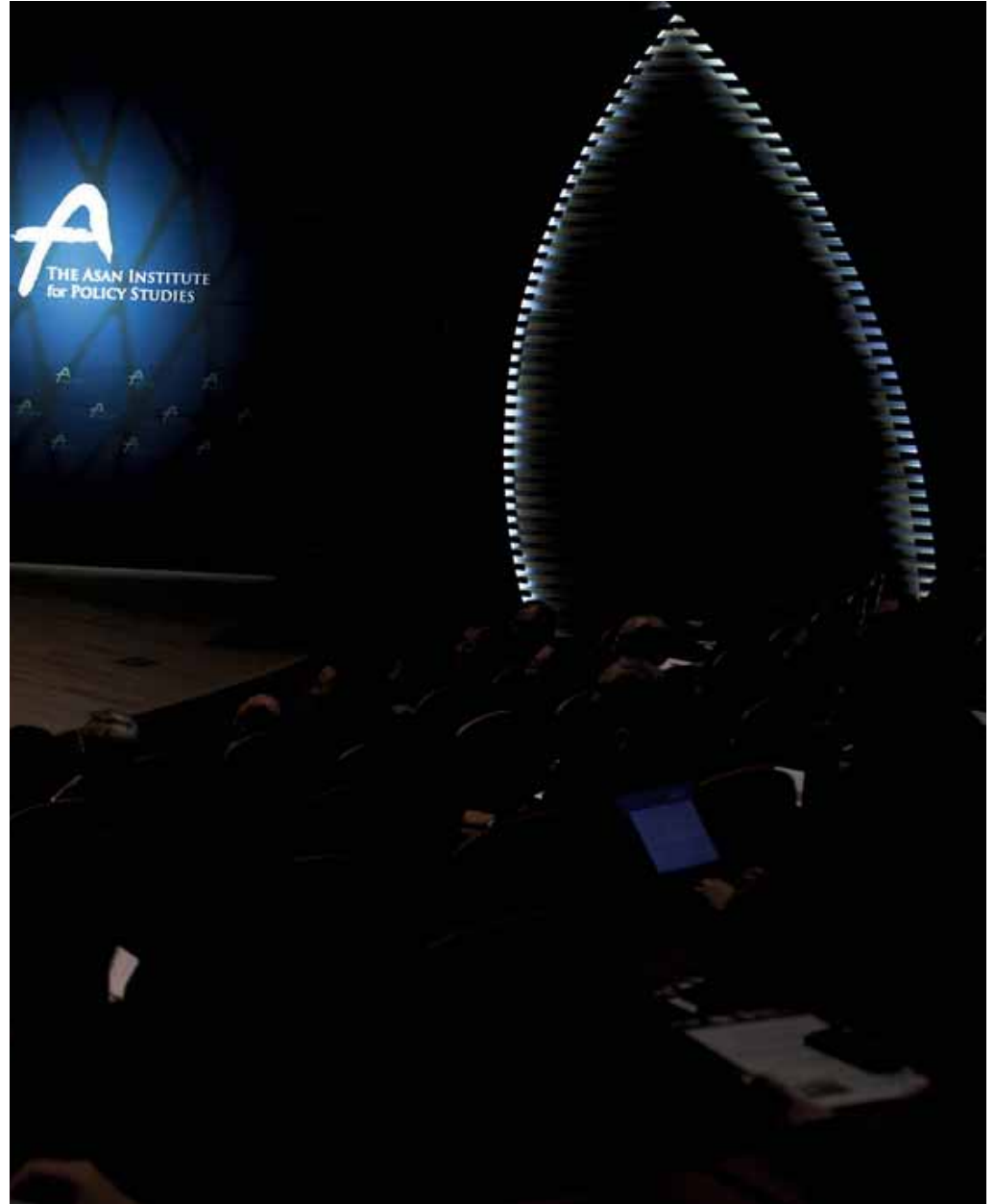
한 미군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동맹국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공해자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접근권 분쟁으로 우려하던 우방국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내 일부 노동조합의 요구로 3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정부가 초당적으로 제기되는 대중 무역장벽이나 관세 장벽 법안을 끝까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무역전쟁에 불을 지피는 일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약 100여건의 양자 무역협정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일본, 대만, 호주, 인도까지 뻗어나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역협정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자유를 위



협할 경우 이 지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제가 경험했던 국가 간 관계 개선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06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해안을 덮친 직후, 미군은 수천 톤의 구호물자를 해당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나라와 미국 사이에 우호적 외교관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몽골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 미국은 베트남에 미 해군의 입항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은 싱가포르와 공식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해 전략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미국은 필리핀의 군사개혁을 지원했고, 남부에서 이슬람교도의 내란이 일어났을 때 사태 진화를 도왔습니다.

- 냉전 시기 미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인도의 사례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기 동안 양국은 군사교류를 강화했고, 인도는 현재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 얼마 전 후쿠시마를 덮쳤던 지진해일과 원전 사고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인은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폐허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난 발생 몇 시간 만에 미국의 비행기와 선박이 구호물자를 이송하고 생존자 구출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양국 간 동맹관계는 아태지역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태지역 동반자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는 지역 안보 강화의 상징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꾸준히 개입하고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점차 위협적인 열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고,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내에 범접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단순한 전망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를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맞닥뜨린 과제 가운데 몇 가지는 중국의 가까운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문제입니다.

먼저 인구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2050년이 되면 미국보다 더 고령화된 사회가 됩니다. 인구의 성별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중국 젊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0만 명이나 많습니다. 이는 국가가 인가한 낙태 프로그램인 ‘한 자녀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중국의 인구팽창 추이를 감안해봤을 때 비상식적일 뿐 만 아니라, 약 2억 5,000만 명 여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충격적인 도덕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시장 자유화와 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국영사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여 결국에는 경제 전체가 무너질 때 노동 불안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일당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중국의 폐쇄된 정치체제를 개방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산층 다수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와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표현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미중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아마도 최악의 외교실패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의 행보를 취한다면, 중국과 미국 간의 건설적 관계 수립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바로 지난주 시리아에 대한 UN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카다피와 아흐마디 네자드 등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독재자와 결속을 강화해왔고,

자국민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밀거래하는 나라들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북한은 남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2,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철저히 격리시켰고, 중국은 이러한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은 때때로 순조롭지 못한 민주화 과정을 겪었으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지켜보면서 과거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했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 번영과 자유로의 전환은 애석하게도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주민이 잔인한 스탈린주의의 희생양으로 남아 있고, 북한 체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통일을 고대하면서 앞으로도 동맹국이자 우방인 한국을 지원할 것입니다. 양국이 맺은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한미 동맹은 성숙과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한국이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리카 연안 해역 등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9·11 기념일 직후 저는 한미 양국이 얼마나 깊은 연대를 맺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뉴욕과 펜타곤을 공격했을 때 전 세계 우방국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전해졌고, 한국은 가장 먼저 심려를 표해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테러 공격 이후 일주일 만에 김장환 목사가 이끄는 한국 조문단이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펜타곤 추모기금에 최초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후 기부금은 펜타곤에 9·11 예배당을 건립하는 데 쓰였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예배당은 9·11 테러 희생자 추모객에게 깊은 영감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선물과 앞으로도 변함없을 한국과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결론

이제 회복력과 투지에 대한 얘기로 이번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특유의 탄력적인 회복력과 투자를 발견하고 새삼 놀라곤 합니다. 2008년 경제위기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휘청거렸지만, 이후 보다 자유로운 교역과 개방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동력이 형성됐습니다. 또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도시와 해안에서도 재건 의지가 끊임없이 불타올랐습니다.

경직된 관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는 해적행위, 마약 불법거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양국관계와 유연한 동맹을 지향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아시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2 질의 응답

질문1_ 2010년 미 국방부가 예산을 일부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무기 현대화 작업 등을 포함한 정책이 중단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량스펠드_ 제게는 미심쩍게 들립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제가 없고, 현 의회가 미래의 의회를 좌지우지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놔두면 미래 세대에게 최악의 유산을 물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삭감이니 절감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는 미 국방부 역시 이런 예산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보도 기사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시절 제가 의회에서 활동했을 때 미국은 GDP의 10%를 방위비로 지출했지만 경제에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국가안보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GDP의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증대는 소위 '재정지원 혜택'이라 불리는 지출과 비방위비지출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방위예산에서 수천억 달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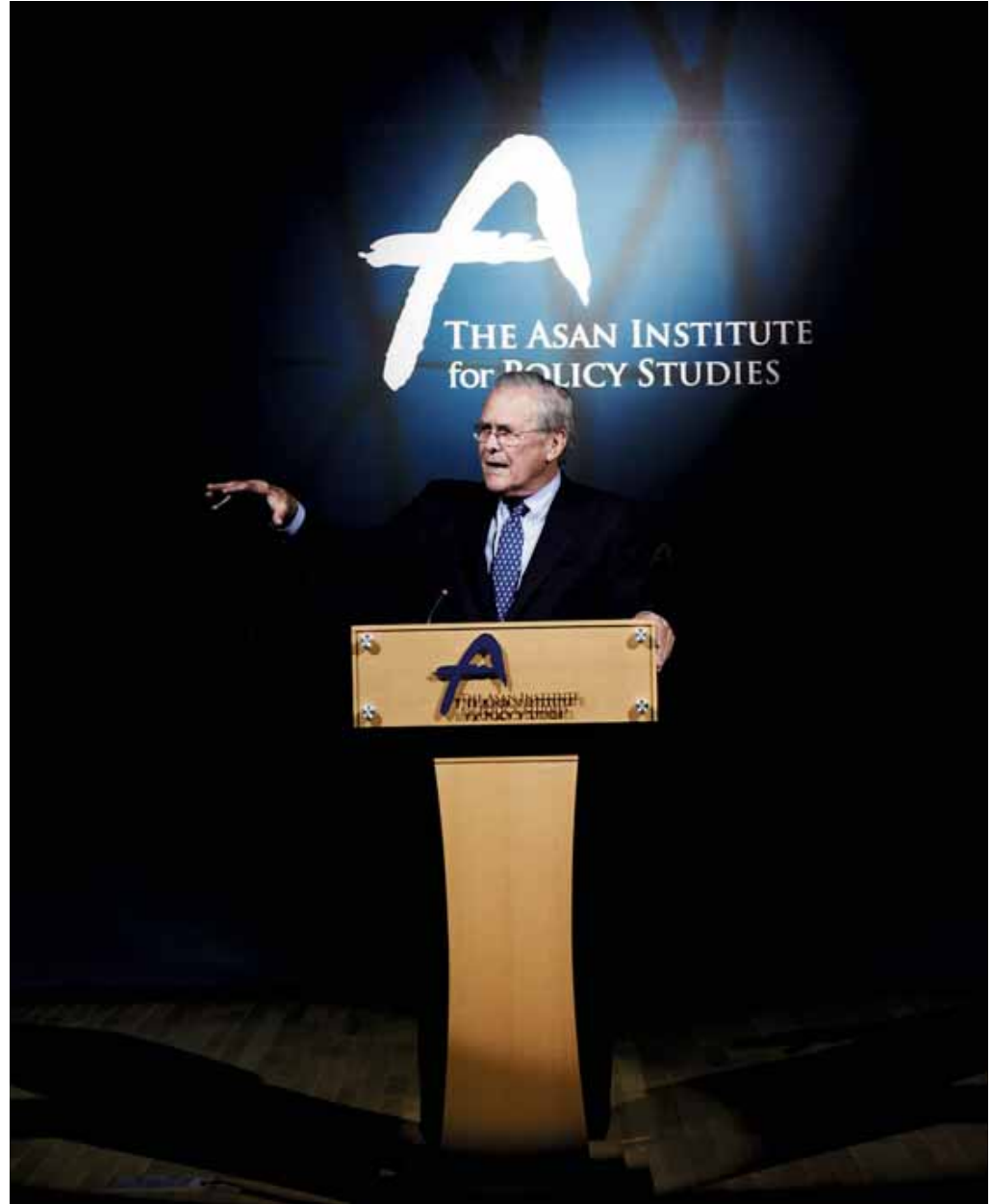
꺼내 예산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냉전을 비롯해 대규모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매년 국방예산을 삭감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뿐 만 아니라 나라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삭감하는 것은 쉽지만, 일단 없어진 능력을 다시 얻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보 요원의 인원을 대량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적정보를 재수립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10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염려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미 언급했다시피, 어떤 대통령 혹은 의회도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미국의 예산문제에서 방위비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부문 예산을 절반으로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자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이후 매년 예산을 감축해왔고 감축된 예산에 맞춰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기의 파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9·11 테러는 3,000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일명 '암

혹의 겨울'이라고 이름 붙인 연구를 학자들에게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 3개 지역에 천연두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실험에서 도출된 결론은 1년 안에 10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명도, 3만 명도, 30만 명도 아닌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취약성은 주변 국가의 공격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GDP의 4%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고, 한국은 약 2.5%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예산 균형을 맞출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질문자가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2_ 발표자가 부시 행정부에서 재직할 당시 대북한 방위정책을 구상하셨는데 혹시 1976년에 있었던 공동경비구역 사건이 이 정책 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널드 럼스펠드_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북한의 전형적인 일탈행동 양식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 양국과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UN 병력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_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비핵화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럼스펠드_ 제가 질문자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북한을 비핵화 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실패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입니다. 1970년대 후반 텔아비브의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시몬 페레스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동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페레스는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에 해법이 없다면 그건 애초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응해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을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국가, 국제기구, 단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포기하지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목표는 국민에게 식량과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을 구휼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문명화된 사회와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독재정권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 윈스턴 처칠은 “독재자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감히 내려올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북한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해법에 대해 물으셨는데, 제 대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전 해법을 모릅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체제 전환이나 정권 붕괴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이 분야에 관한 뛰어난 전문가가 한국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지금껏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중국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4_ 발표자는 회고록에서 9·11 발발 당시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최고 각료로서 사태 수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테러와의 전쟁을 구상했을 때 이 전쟁이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도널드 럼스펠드_ 좋은 질문입니다. 제 웹 사이트 www.rumsfeld.com에 방문해보길 권하고 싶군요. 제가 당시 대통령, 국무부 장관,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 보낸 보고서의 원문이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의 해결방식에 찬성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를 범죄자로 기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테러리스트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테러리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어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해 그들의 공작을 방해하고, 테러 국가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막는 전략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90여 개국의 협조 하에 테러관련 기밀정보와 테러리스트의 은행계좌 정보를 수집했고 첩보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로 승패를 가릴 수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와의 대결에서는 단지 무기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분명했던 양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냉전처럼 이데올로기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테러에 끌어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시에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제가 테러와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단지 이 전쟁이 양차 세계대전보다는 냉전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보복’이나 ‘응징’이라는 표현을 피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대신 많은 나라와 협력해 테러리스트에게 압력을 가하고, 직업교육이 아닌 자살폭탄 테러를 가르치는 학교에 청년을 보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테러와의 전쟁이야말로 냉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스트는 강경 급진주의자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기간, 비용, 인명피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테러와의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 역시 우리처럼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우리와 접촉한 후에는 이에 기초해 대응전략을 수정하고 조정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그들은 곧 파키스탄으로 잠입할 겁니다.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단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미군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미 정부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산주의, 계획경제, 독재체제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체제가 얼마나 잔존해 있습니까? 북한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나요?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느새 그들 세력은 늘어났고 심지어 서유럽의 공산주의는 좋은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불편해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적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슬람 자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테러리스트와 무관한 무슬림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종교 세력의 위협 역시 실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결심한 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세력이 조장하는 공포에 굴복하지도,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삶을 바랍니다.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신중히 처신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5_ 발표자는 예전에 딕 체니, 프랭크 칼루치, 빌 브래들리 같은 후배나 보좌관으로 영입했던 사람들 모두 놀라운 역량으로 국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뽑았고 어떤 점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도널드 럼스펠드_ 먼저 프랭크 칼루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와 칼루치는 대학 시절 같은 레슬링 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우연과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해군 복무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을 때, 제 자신이 능숙한 비행사



이기는 하나 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초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숙고를 해보거나 문서를 작성해본 적은 없었지만,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처럼 대학 레슬링선수였다는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마침 그분의 동생도 저처럼 해군 비행사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국회의원은 저를 채용했고 제 의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칼루치는 외무부 소속 해외주재 군 장교였는데, 저는 그를 경제기획국에 배치시켰습니다.

그 무렵 의회에서 일하고 있던 딕 체니는 세계 경제기획국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관한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좌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딕 체니가 무슨 일을 맡아 진행하기만 하면 거기서 꼭 문제가 터졌고, 전 그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의 능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그가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매우 재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딕 체니는 미국 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처럼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일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천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온 사람, 저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들과 함께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저

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여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주위에 두려고 했는데 유쾌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절 도와줄 수 있는 인재를 일찍부터 발굴해 곁에 둔 것이 더없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재가 저와 미국정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건의 내용은 강연자의 견해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The 6th Asan Memorial Lecture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e Pacific and Beyond”

Donald Rumsfeld

October 13, 2011

Donald Rumsfeld

Donald Rumsfeld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Rumsfeld Foundation, a non-profit philanthropic organization. He previously served as the 13th and 21st Secretary of Def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s served more than five decades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During his second term as Secretary of Defense, he led the Defense Department in response to the terrorist attacks on September 11, 2001, including the liberation of Afghanistan from the Taliban and Al Qaeda, and the liberation of Iraq from the regime of Saddam Hussein. He also helped to oversee the reform and transformation of America's military to be better abl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 former naval aviator, Secretary Rumsfeld has also served as a United States Congressman,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NATO, White House Chief of Staff, Special Presidential Envoy to the Middle Eas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for two Fortune 500 companies. Since the end of his term at the Defense Department in December 2006, Mr. Rumsfeld has continued his public service in a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posts. He recently published a bestselling memoir, *Known and Unknown*, in February 2011. Mr. Rumsfeld is a graduate of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received his B.A. degree.



Chapter **1** Lecture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e Pacific and Beyo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privilege to be back in Asia. The visas on my passport from this part of the world date close to half a century ago, when I made my first visits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Every time I return, I am reminded of the opportunity and promise of this important part of the world. This region is brimming with energy, even in a global economic downturn.

From India through Southeast Asia and Taiwan, up through Japan, and across the central steppes of the continent and to the coastal cities of China, there is a palpable sense of industriousness. That energy is on full display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lights of Seoul and the towers of the Ulsan shipyard attest to the energy and 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hard work, dedication and sacrifice you have built a vibrant nation that is the envy of—and model for—much of the world. I am in East Asia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the friendships, both on a country-to-country as well as on a personal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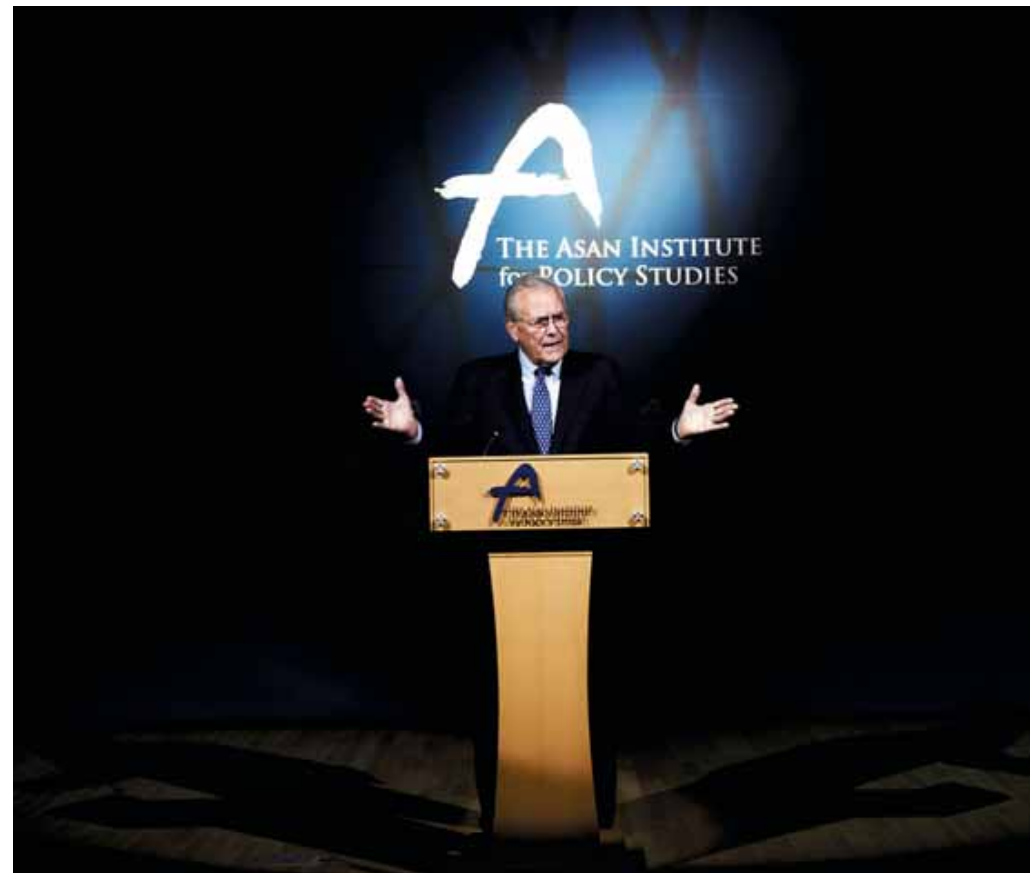
I have recently finished writing my memoir, *Known and Unknown*, which is available in English now and I'm told it will be available in Mandarin and Japanese early next year. After four years of being focused on my book, it's a pleasure to be able to re-engage in global affairs. On this trip, I've benefited from being able to listen and learn in my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thought leaders.

A SHIFTING FOCUS TO THE EAST

My remarks today ar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n

They argue that the 21st century is China's, with its economy projected by some to be the world's largest later in this decade.

But history suggests that straight-line projections rarely play out over the long-term.



academic expert on the region, but rather as an American who has lived some eight decades and who is convinced that my nation and your region will be inextricably linked over the coming decades. Before responding to some questions, I'd like to talk a bit about the U.S. strategy in the world and specifically here in the Pacific, a region that will increasingly define the 21st century.

Founded by the descendants of European immigrants, American foreign policy was traditionally oriented toward Europe. For our nation's first two hundred-plus years, we fought against and then fought alongside European nations in the World Wars. That was followed by the decades-long ideological struggle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At the end of the Cold War, American policies and attention turned to the Middle East. There, a toxic mix of oil-funded authoritarianism, intolerant religious extremism, and ungoverned areas spawned terrorism that found its way to American shores on September 11th, 2001. In the weeks and months after the attacks, President Bush fashioned a strategy that would take America on the offense against terrorism.

This campaign has led the U.S. forces to put pressure on

Islamist extremists and the countries that support them.

Though America's long-term commitment to stamp out Islamist extremism will continue, the current large-scale military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will be reduced.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enter of gravity of the world is shifting toward Asia. The promise and potential here are such that future American administrations unquestionably will make the Pacific a strong focus of our foreign policy. The United States will not and should not be a mere spectator in the Pacific region.

This is not to say that America can ignore a threatening Iran, or be insulated from Europe's economic difficulties, much less problems in our own hemisphere. But strengthening relations and contributing to stability in Asia must and will remain one of the primary focuses of the U.S. strategy.

The Indo-Pacific region contains ove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t has the world's two most populous countries, one of them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It features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America trades some \$2 trillion in goods and services from Asia. An estimated 11 million American jobs are related to trade with Asia.

The region also has some of the world's largest militaries. Defense budgets across the region have increased by about one-third over the last decade. They have increased because people in Asia recognize human nature and history. There is an awareness that peace requires strength, that weakness is provocative and that aggression must be deterred.

A POST-AMERICAN WORLD?

Now I understand that in some circles around the world, it is fashionable to suggest that America's influence is waning. The conventional wisdom in those quarters is that America's best days may be behind it, that our population will age and our economy will shrink. Just yesterday, I read an article in a local newspaper about a bestselling book here in Korea that purports to discuss how America is a mere shadow of what it once was. The argument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decline and that soon we will be living in a "post-American world." I submit that that will prove to be wr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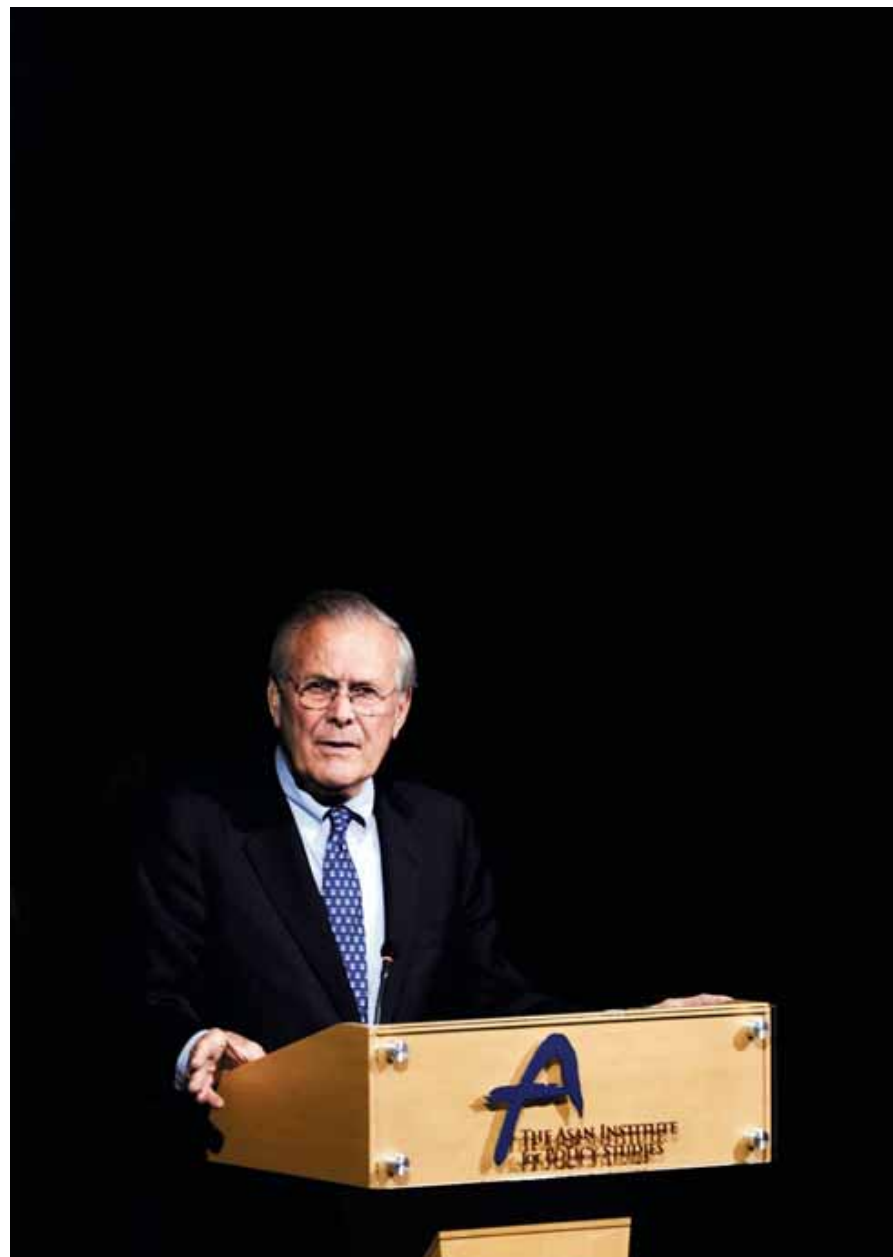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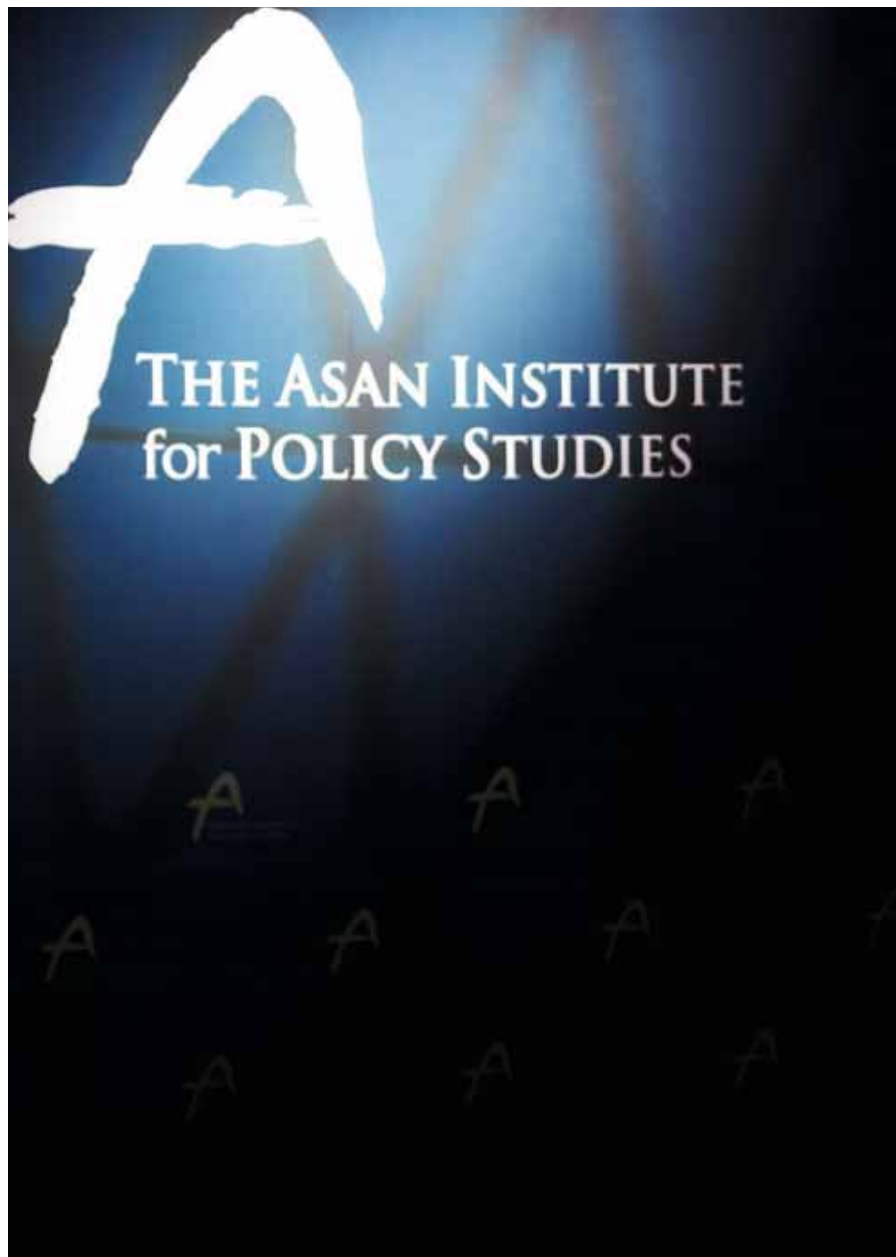
Similar theories have been spun before. So-called "American declinism" has a long pedigree among intellectuals and academics there and abroad. It is a grand tradition stretching back at least to World War II, when pundits suggested America couldn't compete with the centralized and heavily

industrialized economies of Fascism and Communism. Instead, World War II witnessed the rise of a nation that prospered for the next half-century. "Declinists" spoke up again in the 1970s and 1980s, when theories about the inevitable rise of East Asia and the eclipse of the West were en vogue. Again, those notions foundered on reality.

Make no mistake, the challenges America faces are real. If our country fails to curb our debt and to reduce the size and scope of government, such pessimistic predictions could gain strength. If we continue to add layer after layer of regulation and fail to reform a tax code that already is more than 11,000 single-spaced pages of text, we risk further weakening the private sector that is the vital engine for our growth and prosperity. But these are choices. They are certainly not foreordained.

I see a good many reasons to be optimistic about America. For example:

- America remains the global leader in scienc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he most sought-after universities, more patents, and more Nobel Prizes than any nation in the world;



- Our economy, for all of the pressure it has come under, remains one of the freest and most dynamic. More businesses are started in America each year than anywhere else.
- And our society remains open to new ideas, different cultures and industrious people. Our debates can be turbulent but out of this comes innovation. We are still a nation of immigrants that welcomes those eager to contribute to our future.

I am convinced that America remains the country in the world best-suited to succeeding and surviving the changes that are destined to be faster and even more sweeping in the 21st century than at any time before. Because every family in America traces its roots to someplace else, we are familiar with change.

In short, I suggest that any who count out the United States will end up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REGIONAL COOPERATION

America has a vital interest in contributing to peace and stability here in Asia and is important to it. As America gets

its fiscal house in order, our nation will continue to engage in the world and our people will resist the temptation toward isolationism.

The global system has benefited when America has taken a role contributing to maritime security, encouraging global trade, and upholding the international system.

Nowhere is this more true than in Asia, where the U.S. support after World War II helped guide the rise of such dynamic economies as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China too has benefited, just as America has, since President Nixon's dramatic visit in 1972. The U.S. forces here in South Korea have helped to keep the peninsula from falling into the abject poverty and tyranny of the Stalinist communism in the North. The U.S. forces in Japan have contributed to a security umbrella for them and for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Taiwan. Our commitment to help to defend the freedom of the seas has been welcomed by our friends and partners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territorial and access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 United States could do would be to finally extend free trade agreements to our Asian partners. The U.S.-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was just recently submitted to Congress after being held up for three years in the White House, at the demands of America's labor unions. It should be enacted immediately.

I feel strongly that America needs to resist the current bipartisan proposals that would erect trade barriers and tariffs against China. Risking the start of a worldwide trade war is the last thing the global economy needs ever, let alone now.

It's clear that Asia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free trade. Some 100 bilateral trade agreements have been signed over the past decade. I would like to see similar free trade agreements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stretching from Japan to Taiwan, Australia, and India, and leading eventually to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of the Pacific.

Cooperation is not simply mutually beneficial when it comes to trade. Cooperation is an imperative when freedom is under assault, whether by a despot in North Korea or Islamist extremists who have struck here in the Pacific. The United States should welcome growing ties among Pacific and Asian nations and embrace a role in fostering them.

I remember well some examples of progress during my recent years as Secretary of Defense:

- In Indonesia and Thailand, we ushered in a new era of warm relations after the 2006 tsunami ravaged their shores and the U.S. troops brought many thousands of tons of aid and water to the region.
- We forged new ties with formerly communist Mongolia, a country that sent troops to Afghanistan and Iraq.
- In Vietnam, we launched an initiative to have the U.S. Navy conduct port visits.
- We created a strategic framework with Singapore, to establish a formal new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 We helped the Philippines transform its armed forces and lent a hand in helping them confront an Islamist insurgency in its south.
- And of course, there is India—a relationship that had been uneasy during the Cold War. During the years of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e strengthened our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And today India is a valuable and valued partner.
- More recently, the earthquake and subsequent tsunami and catastrophe at Fukushima have been devastating. Americans were heartbroken to see the images of destruction left in the wave's aftermath. But we were grateful to see that within hours, the U.S. aircrafts and ships were delivering aid and helping evacuate victims.

These kind of bilateral ties contribute importantly to security in the region. Increasingly, activities like these and so many others with regional partners are a hallmark of security in the Pacific.

CHINA

A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 believe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engage and seek to improve relations. There are those who suggest that China is 40 feet tall and that it is destined to become a threatening global superpower. They argue that the 21st century is China's, with its economy projected by some to be the world's largest later in this decade. But history suggests that straight-line projections rarely play out over the long-term.

There is a noticeable lack of discussion about China's challenges, some of which could result in cross-currents that will affect its circumstance in the decades ahead.

One is demographics. China is aging more rapidly than the United States. By 2050, the PRC's population will be older than America's. Then there is the question of gender imbalance—with China having some 24 million more men than women in its younger generation. This, of course, is due to the “One Child Policy,” a state-sanctioned abortion program which seems to defy common sense given the PRC's need for demographic expansion, but also in my view, represents a striking moral failure in that an estimated 250 million Chinese girls have been deprived of life.

Second is the fact that despite efforts to liberalize and open up China's markets to the West, in large swathes of its

economy there are still massive, centralized government-run businesses. When these inefficient and uncompetitive sectors of the economy are eventually broken up in pursuit of growth, fresh labor unrest seems almost certain.

Third is China's political system, which remains a one-party system. Hopes that a free-market economy would lead to the opening of a closed political system have thus far proven illusory. Many in the emerging middle-class are chafing at the restrictions on political expression that are increasingly felt given the expansion of social media like Twitter, Facebook, and a global media culture.



A rigorous assessment of the PRC requires acknowledging these facts. Let me emphasize that I most certainly do not believe tha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likely, let alone inevitable. Were it to occur, it would represent the gravest possible failure of diplomacy.

There is no good reason wh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have a constructive relationship if it evolves and chooses the path of a responsible stakeholder. But from Gaddhafi to Ahmadinejad and with its veto of the UN sanctions on Syria only last week, the Chinese government has closed ranks with the world's few remaining dictators and refused to join in diplomatic efforts to isolate those who brutalize their own people or traffic in the world's deadliest weapons.

KOREAN PENINSULA

China has also been a willing enabler of the regime to the north that holds 23 million Korean people back from the impressive progress we see here in the South.

Whil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t times been less than smooth, as it almost always is,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oud to stand with you and

support that process as Korea has evolved into one of the leading democratic nations of the world.

Sadly, this transition to economic prosperity and political liberty has not been mirrored for the people in the North, where millions remain the victims of a cruel Stalinist regime, a regime that remains a significant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We share with you the hope that someday all Korean people will live in freedom.

While we anticipate that time, today and into the future, America will continue to st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s your ally and friend. The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historic success story. It is the story of an alliance that has matured and evolved to the point where Korea is poised to take a larger role in leading the defense of its people. I am pleas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working actively with other coalition partners to bring peace and stability to areas far away from the peninsula: in Afghanistan, in Iraq, and off the African coast.

I was reminded just the other day, soon after the anniversary of 9/11, of the depth of the bond between our two nation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ttacks in New York and at

the Pentagon, we began receiving words of condolence and encouragement from friends around the world. Korea was not only one of the first to offer such words, but in the week immediately following the attack a group of Korean friends led by the Reverend Billy Kim was the first to contribute to the Pentagon memorial fund—a fund that did not even yet exist. That generous gift from your country helped to fund the Pentagon’s 9/11 Chapel, where a beautiful set of stained glass windows purchased with Korea’s donation inspires and brings comfort to all who visit. For that gift and the continuing gift of Korea’s friendship, I offer my heartfelt thanks.

CONCLUSION

I close by returning to the theme of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These are traits I am struck by each time I travel to Asia. Where many economies have stumbled in the wake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Asia there has been a renewed drive for freer trade and more open markets. Where earthquakes and tsunamis have terribly ravaged cities and coastlines, there has been the commitment to rebuild.

Where others have put an unshakeable faith in rigid transnational bureaucracies, Asia has moved toward a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set of bilateral relations and flexible coalitions to tackle problems such as piracy, drug trafficking,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o I share the wide optimism about Asia's future. And I should add that I am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as well. The United States remains a Pacific nation and in the coming decades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interest of prosperity and peace here in the region.

Thank you so much.



Chapter 2 Q & A

Question 1_ The Pentagon has announced some budget cuts in the next decade and this may come with tough decisions, including the delay of modernizing weapons. Do you think this will affect the U.S. troops currently stationed in Korea and do you think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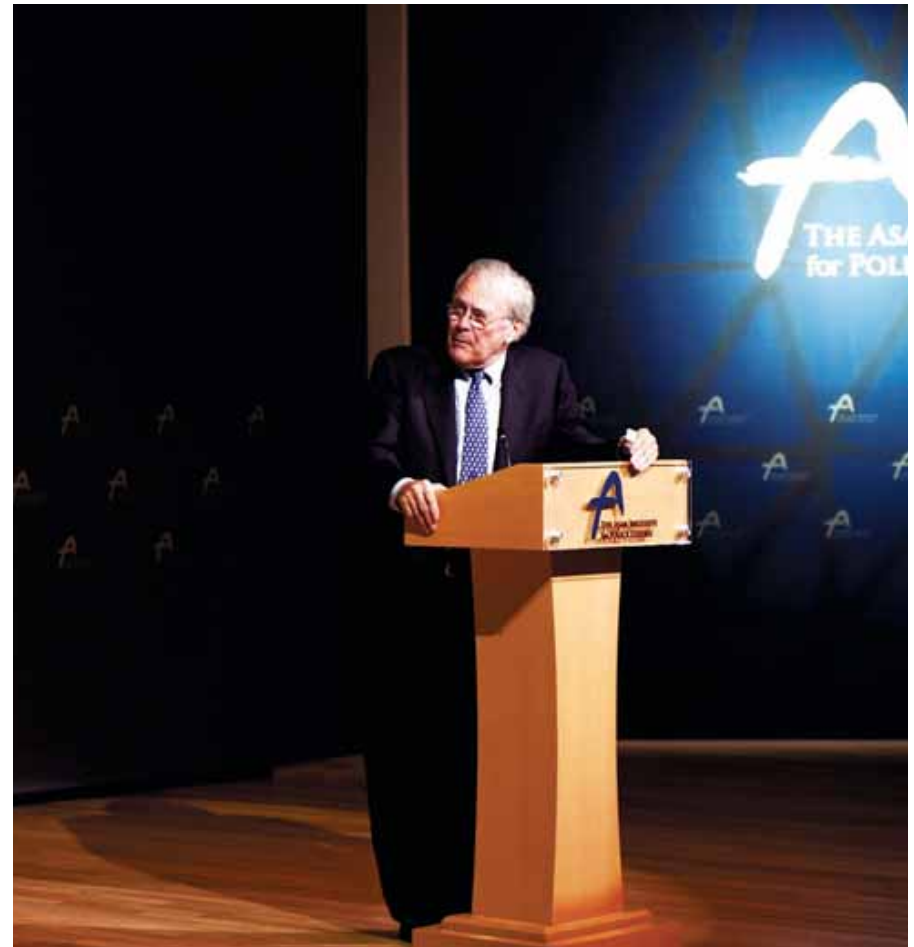
Donald Rumsfeld_ That is not clear to me. First of all,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 is no way one president can commit a future president to something like that. Second, there is no way that a congress can commit a future congress. Right now,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pen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e have a sizable deficit and debt that if it remains, it will be crushing to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everyone is talking about cutting everything.

The reports you are reading are suggesting that the Pentagon has been part of the budget problem. The fact is that it has not. When I served in Congress during the Kennedy and Johnson presidencies, the U.S. was spending 10% of GDP on defense and we were just fine. Today, we are spending less than 4% on national security. All of the growth in the budget has come from so-called 'entitlements' and non-defense spending. I mention this because as people take a deep breath and think about things, the speculation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eing cut out of the defense budget will likely prove to be just speculation. After every major conflict—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War, Vietnam War, and the Cold War—the U.S. drew down its budget and each time we had to crank it back up again. It was a very wasteful way to behave. Not only was it inefficient, but it created weaknesses. It is always easy to cut something today. What is difficult to do is build capability today if you decide to turn the faucet the other way. If you cut down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for example, you can do it overnight, but it takes a decade to rebuild and strengthen those human intelligence capabilities.

Why do I say that it is not going to happen? As I said, no president or congress can bind a future president or congress. Second, I think the facts are just so obvious where the problems in our budget are. You could cut the budget of the defense department in half and it would not even begin to solve the deficit problem. The other reason is we live in a different period now. Someone could say that we cut it after every war and we got away with it. We survived. Let me just say that this is a different world we live in today. The lethality of weapons today is vastly greater. We cannot afford to make a mistake again. Three thousand people were killed on 9/11. We had researchers do a study called Dark Winter

I am pleas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working actively with other coalition partners to bring peace and stability to areas far away from the peninsula: in Afghanistan, in Iraq, and off the African coast.



and they theorized smallpox in 3 locations in America. They concluded that within a year, you could have one million Americans dead. Not 3,000, not 30,000, not 300,000, but 1,000,000 people.

You cannot afford to make a mistake today; political leadership has a very small margin for error. They have to be wise and peace has to be achieved through strength and not through weakness. Weakness is provocative. We have to be smart enough in our country and in your country as well. We are now spending about 4% of GDP on defense and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is spending roughly 2.5%. That is something people ought to think about. That is not for me to tell any other country what they ought to do but I can animatedly tell you the U.S. cannot balance the budget off the defense establishment or we are putting everything at risk. I am absolutely convinced that it will not happen.

Question 2_ Did the events of the 1976 Joint Security Area incident have any effect on your defens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during your service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Donald Rumsfeld_ I remember it well. I think it was one more manifestation of the erratic behavior of North Korea.

It was a caution to you and us, and to the UN forces in the DMZ, that we are dealing with a situation that is not predictable. We have to be vigilant and strong. We need to continue to try to deter actions of that type.

Question 3_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a great effort to try to make North Korea abandon its nuclear weapons. The Bush administration failed to denuclearize the regime. What do you think the remedy is?

Donald Rumsfeld_ I would have phrased that slightly differently. I think we all fail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Doesn't that sound at least reasonable? I can remember being in a Chinese restaurant with Shimon Peres in Tel Aviv back in the late 1970's and we were talking about the Middle East problem. He looked at me and said, "You know, Don, if a problem has no solution, it is not a problem. Rather, it is a fact not to be solved but to be coped with over time." This quote came to my mind. You are right; no one has been successful in causing the North Koreans to behave rationally. No country or clusters of countries have been successful. That leaves me to conclude that they intend to keep doing what they are doing.

That does not mean you give up and that there is no hope.

The regime's principal goal in life is not to help its people, not to provide food, not to create opportunities, not to interact with the civilized world, but to perpetuate themselves in power. That is what dictatorial regimes do. Historically, Winston Churchill mentioned something to that effect with words such as, "Dictators ride a tiger and they dare not get off." I think that is what is happening. Now, does that mean we give up? I think not. It is a terrible problem not just for the peninsula but for the region. Not only have they persist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but they have been proliferating and assisting others to do same.

I think you asked me at the end of your question whether I had the solution and the answer is no. Honestly, I do not. I wish I did, but I don't. I think I am not in the position to speculate on what will evolve in that country when the regime changes. You all have much more expertise in that than I do. I think one thing we all have to keep in mind is that the PRC has not been helpful at all. One would think they would have some influence over their neighbor. They have not, to my knowledge, used any of the leverage that they have to try to cause that regime to change its mind. We have to manage affairs in a way that recognizes that unfortunate reality.

Question 4_ You mention in your memoirs that you were the highest cabinet member who was in Washington on 9/11. You were helping keep Washington in order. In planning for the War on Terror, did you expect the war on terror to continue for more than a decade?

Donald Rumsfeld_ That is a fascinating question and I would be happy to respond. I hope that you will visit my website at www.rumsfeld.com because there were memos that I was writing at the time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urity Council discussing that very thing. I think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that I was very much in favor of President Bush's approach. He decided that you should not treat Islamic fundamentalist terrorists as criminals, indict them, and hope they do not do it again. The important thing was to recognize that a terrorist could attack at any time and any place using any technique and it is not possible to defend at every moment of the day at every location against every conceivable technique. The purpose of terrorism is not to kill people, but it is to terrorize people and alter their behavior.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decision to go after them and make it difficult for them and for the countries harboring them was exactly the right thing to do. That is exactly what President Bush did. He established over a ninety-nation coalition that shared intelligence and shared

information on terrorist bank accounts and began to try to accumulate information to try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Now, I also wrote and said I was uncomfortable about the phrase, “War on Terror.”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word ‘war’ suggested that it was a struggle to be won with bullets but the struggle with radical Islamists is not going to be won with just bullets. Also, “war” left people with the impression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here it starts and it stops. This is much more like the Cold War; this is a competition of ideas and we do not have any good metrics



(we did not back then and we still do not today) to obtain the number of people being recruited into radical groups and how many people are giving money to these activities. Now, did I have any idea about how long it would go on? No, I assumed it would be more like the Cold War than World War I or World War II. I suggested that the President not use words like ‘retaliation’ or ‘retribution’ and instead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getting other countries to cooperate, put pressure on the terrorists, and try to dissuade people from sending young men and women into schools where, instead of being taught how to get a job, they are being taught how to strap on a suicide bomb. I assumed it would be more like the Cold War than any of the other wars.

These terrorists are determined and they are zealots. They are willing to commit their lives to killing other people to try to achieve their goals. I think anyone that thinks that they could estimate the length, the cost, or the cost of lives of any war is making a mistake because the enemy also has a brain. After first contact with the enemy, they adapt and adjust based on what you do. If you push them out of Afghanistan, they go into Pakistan. It is not easy, it is not nice, and we all know that war is a God-awful, terrible thing. One would wish it would all end. However, the biggest concern I have is: our military people are doing their job but we as a country are

not doing the job of competing with ideas. We did compete against the idea of communism, controlled economies, and dictatorial political systems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how many of these systems are actually left? North Korea? Maybe a few more? Not many? They were on rise for long time and people even talked about Euro-communism being the good communism.

Therefore, I think we need to compete against the idea of Islamic radicals. But everyone is nervous about talking about it because no one wants to be seen as against a religion. Of course, we are not against a religion. There are Muslims all over this world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terrorists. On the other hand, the threat is real. There are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use increasingly lethal weapons to kill people who do not agree with them. And as free people, we need to recognize that we do not want to be terrorized or alter how we live our lives. Rather, we want to be able to get up in the morning and walk out the door and not be in fear of our lives. That is not just going to happen. We have to be attentive, serious, and persist over time.

Question 5_ In our private conversation, you mentioned you said that your protégés such as Dick Cheney, Frank Carlucci, Bill Bradley, and all of the people you had first

brought in as assistants, went on to serve the country with incredible distinction. How did you pick them? What did you look for?

Donald Rumsfeld_ Let us talk about Frank Carlucci first. Frank Carlucci was on the wrestling team in college with me. Sometimes that is how it is in life. When I got out of the Navy and went to Washington to look for a job, I knew I was a good Navy pilot but I knew nothing about working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 had not thought or written about any of those issues but I wanted to do it. I finally found a congressman who had been a wrestler in college, as I had, and his brother had been a naval aviator and instructor, as I had, and he hired me. The logic of that escapes me but that is how it works. Because Carlucci was a career foreign service officer, I pulled him out of the Foreign Service and pulled him into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At that time, there was a young academic who was working on Capitol Hill and he wrote a memo explaining to me what he thought I ought to do after I take over this agency called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and his name was Dick Cheney. So I hired him as a young assistant. Every time he did something, every time there was a problem, I had him work on it. Every time the problem got tougher,

he got better. I am not stupid; I looked at that and thought that he was pretty good. I started giving him more to do, the country started giving him more to do, and then he ends up becoming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less you are Einstein or Mozart, someone who is brilliant who can go off by themselves and think and do brilliant things, all the rest of us who are not geniuses need to work with people. I do it by working with people in meetings and discussions. I do it by being around people who have done things I have not and that are smarter than I am. I am constantly putting myself in a position where I have to do something new so I learn. I try to be around people that have a decent sense of humor because you are more likely to work longer hours since you enjoy being with those people. It has just been my great good fortune that I figured out early that most things in this world I do not know how to do, so I'd better find some of the best people around to help me do whatever it is I have been asked to do. As a result, we have ended up with a lot of wonderful people helping me, our country, and our government. Thank you very much.

*The views express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